



January / February 2016
Volume 67, Number 1





**COLD
AND
REFRESHING!**

REACH FOR THE FIRST BOTTLE THAT TELLS YOU
WHEN YOUR BEER IS COLD—THE COORS LIGHT® COLD ACTIVATED BOTTLE.
IT'S WHAT COLD BEER LOOKS LIKE.

21
MEANS 21®



THE WORLD'S MOST REFRESHING BEER™ 

Miller

NEW
BOTTLE
FRIDGE
PACK

PACK ON

THE PROFITS



Great Taste...
Less Filling.

USE SIDE
CARRY
HANDLE

Miller
Lite
TRUE PILSENER
BEER

12-12 FL. OZ. BOTTLES

Only 3.2g carbs and
95 calories. Choicest Hops
for Premium Taste.

12-12 FL. OZ. BOTTLES

목 차

Officers

President

Seong Chil Heo
New York

Vice-President

Phillip kim
Canada

Vice-President

Yo Seop Lee
Washington D.C

Vice-President

back gyu kim
Georgia

Vice-President

sean yeon
Colorado

Vice-President

kyeong ho ko
Washington

Vice-President

calvin choi
Arizona

Auditors

seung soo Lee
yun ok kim

- 6. 회장 인사말
- 8. 이사장 인사말
- 9. 각 지역협회 새해 인사말
- 12. 업계 뉴스
- 14. 트레이드쇼
- 31. KAGRO 포토 갤러리
- 35. 각 지역 협회소식
- 40. 건강뉴스
- 42. 회장단 및 스폰서 소개

Board of Directors

Chairman

kwang ik Lim
Colorado

Vice Chairman

Tae jin Jung
Vancouver, Canada

Vice Chairman

jong sic Lee
New York

Vice Chairman

Jung chil kim
Southern California

Vice Chairman

Jong hee chang
Central California

Vice Chairman

Ik ju kim
Manitoba, Canada

Advisors

Ki Ok Kim
Yang Il Kim
Ki Pung Jeon
David H Kim
Andrew Ku
Ju Han Kim
David kim
Yong Wong Han



January / February 2016

CONTENTS

Board Members

KAGRO International

Arizona
LA California
Central California
Northern California
Chicago
Colorado
Dallas
Delaware
Georgia
Harrisburg
Hawai
Maryland
New York
Oregon
Philadelphia
Tennessee
Virginia
Washington D.C
Washington
Calgary, Canada
Edmonton, Canada
Manitoba, Canada
Ontario, Canada
Quebec, Canada
Vancouver, Canada
U.K.B.A Canada

- 6. President's Message
- 8. Chairmans Message
- 9. Greeting of New year Message
- 12. Industry News
- 14. Trade Show
- 31. KAGRO Photo Gallery
- 35. Chapter News
- 40. Health News
- 42. Board Members & Sponsors

Editorial Staff

Publisher

Seong chil Heo

Editor

Justin Lee

Journal Advisor

Justin Lee

International KAGRO
is a member of the
FMI Association
Council and a
member of the NGA
Association Council.

새해 인사말 Greeting of President



허 성 칠 회장

존경하는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새해 가정의 행복과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사업이 번창 하시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과 성취를 위해서 그 어느 타민족 보다 열심이고 근면한 회원 여러분.

그저 앞만 바라보고 달려오는 동안 벌써 2016년도...

순간 순간 더 가까워지는 거리감, 낮아지는 국경 좁아지는 공간 감각으로 인해 우리는 국제 사회속에 총연이 해야 할 일들을 더욱 더 깊고 자세하게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깊은 동면에서 깨어나 새로운 세계를 향해 전진하는 새해를 맞이 하면서 10년이 넘도록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으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길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시간 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속에서도 어둠을 헤치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노력에 기인한 좋은 결과가 이제는 밝아오는 호경기에 자리를 넘기고 있습니다.

지금 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더 강하게 총연을 중심으로 지역 챗트를 중심으로 우리 식품인들이 다시한번 하나가 된다면 2016년 대을 향한 가슴 벅찬 내일을 위해서 힘 들었던 지난 날을 뒤로 접어두고 또 " 한번 힘찬 도약", " 또 한번의 멋진 한해" 만들어 나갈것을 당부 하면서 회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력과 성원, 노력과 협조에 충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허 성 칠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 회장

2016 New Year Greeting

Dear KAGRO International Members,

I wish you and your families, health, happiness and growth in business this year. We have worked so hard for our dreams, hopes and success more than any other and it's already 2016 after running straight-forward all these years. The distance is getting closer and closer, and w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progressing. We have been actively processing our duties as an International Community one by one.

Awakening from hibernation and moving forward to the new year; we had a very difficult past 10 years, one we could not beat, even with all our efforts. However, even in such difficult times, we did not falter and now through that struggle, we now have brighter and stronger results to look forward to.

Just as we have done until now, if we focus strongly in our community and work around the local chapels and become one again, 2016 will become that breathtaking event that can fold the hardships and become the "one mighty leap," and "another successful year."

Thank you to all our members for your generous collaboration, cooperation, efforts and encouragements.



Seong Chel Heo, President
KAGRO INTERNATIONAL ASSOCIATION

이사장 인사말

Greeting of Chairmans



임 광 익 이사장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희망찬 2016년 병신년을 맞이하여 모든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이 넘쳐 흐르길 기원합니다.

올해가 병신년 원숭이해 그것도 붉은 원숭이해 입니다.
원숭이는 재주가 많고 매우 민첩하고 빠른 놈이지요.
그래서 옛 어른들께서 잔나비라고도 합니다.

회원여러분. 여러분도. 또한 우리총연도 잔나비처럼 빠르고 정확한 판단으로 모든안건과 사업을 결정할수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추진 할 사업은 적극적인 추진력을 발휘하고, 아니면 과감히 즉시 멈출 수 있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모든 사람이 꿈을 꾸고 삽니다.

허황된 꿈과 진실된 꿈이 있다고 봅니다. 항상우리는 진실된 꿈을 쫓아가야지.

허황된 꿈은 절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된다. 안된다 하는 말을 많이 하고 생각하지요. 즉,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두 측면을 생각하게 됩니다.

모든 일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이룰 수 없고 매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안될 일도 없다고 봅니다.

회원여러분. 2016년 새해에는 여러분이 총연에 대해서 정확하고 빠른 판단과 허황된 꿈이 아닌 진실된 꿈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면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한마음 한뜻으로 총연을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에는 우리총연도 알찬 결실을 맺도록 전진합시다.

다시한번 여러분 과 여러분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감히 기원합니다.

임 광 익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이사장

지역협회 _새해 인사말
New year Message



김백규 회장

북미주 식품상 총연합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 총연합회 및 한인사회는 많은 성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외 여러가지 힘든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포들은 슬기와 지혜로 큰일없이 잘 이겨왔습니다. 특별히,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는 애틀랜타 지역의 주류사회 이웃들과 항상 함께 하면서 그들과 가까이에서 우리 Korea라는 image를 심어줌으로써 동포사회의 위상을 높여왔습니다.

북미주 식품상 총연합회가 창립된지 26년동안 각지역의 식품 및 식품 주류상 협회의 대표자들이 매년 2번씩 모여 식품상 총연합회의 나아갈 방향에 연구하고 논의를 거듭해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허성칠 총연합회 회장 및 준비위원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내년초 제1회 국제 트레이드 쇼를 추진해 오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그동안에 흘린 땀이 좋은 결실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며 각 지역 식품협회의 활성화에도 큰 기폭제가 되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올해도 즐겁고 행복한 한해로 마무리 하시고 2016년 丙申年 해에도 항상 사랑과 즐거움이 충만하고 각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 회장 김백규

지역협회 _새해 인사말
New year Message



이요섭 회장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을미년을 벌써 저만치 밀어내고 병신년 새해를 맞으려합니다.

지난해 이루지 못했던 많은 일들에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새로운 계획과 도전으로 바꾸고 희망가득한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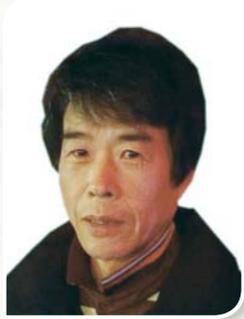
지난해 디씨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6일 오픈했던 리커스토어가 7일로 바뀌고 비어와인 스토어에도 리커라이센스를 내주는가하면 대형 체인점의 거의 모든 곳에서 비어와인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주민들의 유입으로 소비자들의 취향이 바뀐것도 간과해서는 안될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도 더욱 적극적이고 매장의 청결및 손님들에게 더욱 친절하고 그들에게 맞는 물건들은 갖추어 편리함과 차별화라는 우리가 가진 장점을 살리는 한편 이웃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주민회의등에 참석하여 지역의 변화와 요구를 파악하는것도 중요한 일임을 인식해야 하겠습니다.

저희 협회도 회원들에게 필요한 새로운 법규를 전달하고 시정부와의 마찰을 방지 또는 최소화 하기위해 협회와 사정부간의 만남과 대화창구를 활성화 관계를 유연하게 유지시키는 한편 사업정보나 경험, 성공사례들을 공유하여 매상증진에 도움을 줄수있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이모든 일들은 우리 국제식품주류상 총연합회 산하 모든 첩터회원들이 공감하는 어려움과 활동방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4월에 있을 식품 트레이드쇼 또한 회원들의 위상과 매상증진을 돕는 좋은 기회가 되리라 믿고 모두가 힘을 모아 성공적으로 치루어 질수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것입니다. 아무쪼록 새해 이루고자하는 많은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는 축복된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워싱턴 식품주류상협회 회장 이요섭

지역협회 _새해 인사말
New year Message



김 종 찬 회장

안녕하세요?
 미주 서북부에 위치한 워싱턴주 식품협회 회장 김종찬입니다.
 저희 협회는 워싱턴 주에서 사업을 운영하고계시는 1,052개 업소의 회원으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미주 총연 통해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모두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것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미국 전체의 경제 회복이 시작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저희에게 느껴지기엔 시간이 더 필요한것 같습니다.
 심해지는 규제와 더딘 경기회복으로인해 아직 어려워하시는 동포님들도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민족 특유의 근면과 성실로 노력한다면, 머지않아 좋은 일들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4월에 있을 미주 총연 식품전시회에 많은 회원님들과 동포님들, 그리고 관계된 업체, 기관들 등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성황리에 마친다면, 미주 한인들의 힘을 미 주류사회에 보여줄수있는 또 하나의 큰 계기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동포 모두에게 좋은 일 많이 생기는 2016년도가 되길 빕니다.

워싱턴주 그로서리 협회 회장 김 종 찬

지역협회 _새해 인사말
New year Message



박 재 곤 이사장

미주 동포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워싱턴주 그로서리협회 이사장 박재곤입니다.
 지난해가 저물고 또 새로운 한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일이 지금 하고있는 일이고, 가장 소중한 사람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 이고, 가장 소중한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순간 한 순간을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산다면, 좋은 일만 생긴다 고 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대한 걱정은 기우라고 하였습니다.
 지나친 걱정보다는 매 순간 감사하면서 산다면 행복한 우리의 한해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워싱턴주 그로서리 협회 이사장 박 재 곤



PEPSICO



Tropicana



Industry News



Europeans Limit Credit Card Fees

If it can work in Europe, why not in the United States?



“This legislation is good for consumers, good for business, and good for Europe,” said Margrethe Vestager, European commissioner in charge of competition policy. “It will

lead to lower prices and visibility of costs for consumers. It reduces a tax levied on business by banks in the form of interchange fees, and releases the brakes that have so far held back innovation.”

Here in the United States, these transaction fees have eaten away at merchant profits, becoming their “fastest-growing expense and their second- or third-highest cost behind payroll and health care. And since they are passed on to consumers, Americans pay more in swipe fees than the rest of the world combined,” Duncan wrote.

While Congress has acted to reduce swipe fees for debit card transactions, it has not addressed credit card transaction fees. “It’s time for U.S. policymakers to follow that example so American merchants and consumers can stop paying the bulk of the world’s swipe fees,” Duncan concluded.

Rival Cigarette Tax Ballots Stir up Debate

R.J. Reynolds Tobacco supports one Missouri proposal, while value-brand cigarette makers are backing the other.

JEFFERSON CITY, Mo.- It’s not every day that tobacco companies find themselves on opposite sides of a cigarette tax hike debate, but that’s the scenario playing out in Missouri this year, McClatchy DC reports. Two rival ballot proposals to increase the state’s 17-cents-per-pack tobacco tax—the lowest in the United States—have divided the tobacco industry.

One proposal would request voters formally amend the Missouri constitution to jack up the cigarette tax to 60 cents per pack, with the increased revenue earmarked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R.J. Reynolds Tobacco Co. supports this measure, backing up that endorsement with a \$1 million donation.

The second proposal would put before voters a 23-cents-per-pack cigarette tax increase, with the additional revenue poured into road repairs. This measure has the sponsorship of the Missouri Petroleum Markets and Convenience Store Association, which has long opposed any increase of the tobacco tax. Smaller, value-brand tobacco firms, such as Cheyenne International, have given financial aid to passage of this measure.

Both proposals are being considered for the 2016 ballot. A key issue that has divided the tobacco companies is that large tobacco companies are required to make annual payments to the state as part of a 1998 legal settlement, but smaller tobacco companies weren’t part of that settlement. The higher tobacco tax bill rectifies that oversight.

No matter the proposal, raising tobacco taxes has yet to

succeed in Missouri in recent years. Ballot efforts failed in 2002, 2006 and 2012.

ATM Fees Reach Record High

The fees customers pay to withdraw money have increased 21% over the past five years.

NEW YORK- The ATM fees that customers must pay to access their money in convenience stores and other ATM locations has hit a record high, the latest survey from Bankrate.com reveals. Now customers have to pay an average of \$4.52 in ATM fees every time they withdraw money from an ATM that's out of their bank or credit union's network. That's an increase of 21% over the past five years.



Even though technology costs of operating ATMs have been declining, financial institutions are still raising ATM fees, making it more expensive for customers to access cash at ATMs in convenience stores to make their purchases. "As banks have lost money in other areas, they've tried to make up for it by raising fees," a new NBC News article states.

A few online banks offer customers and retailers less expensive ATM fees, according to the article, and those include USAA, Ally and HSBC Direct.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consumers to know is that all of these fees are completely avoidable," Bankrate.com's chief financial analyst Greg McBride said in a statement. "Shop around for a bank or credit union that fits your lifestyle so that you can keep more of your hard-earned cash."

Gray Taylor, executive director of Conexus, told NACS Daily that the banking industry "has saddled itself with an outdated branch system that fosters inefficiency. We have three to four times the branches per capita of

more efficient systems found in other G20 nations where such fees are non-existent. The escalation of ATM fees subsidizes these empty branches and has little to do with the actual operation of the ATM network."

FDA Tobacco Regulations Move Forward

The agency takes one step closer to finalizing regulation on additional tobacco products.

WASHINGTON - This week, the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moved closer to issuing final regulations related to additional tobacco products.

The 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 (Tobacco Control Act), enacted in 2009, provides FDA with authority to regulate cigarettes, cigarette tobacco, roll-your-own tobacco and smokeless tobacco. The law also allows the FDA to issue regulations deeming other tobacco products that meet the statutory definition of "tobacco product" to also be subject to the Food Drug & Cosmetic Act, commonly referred to as a "deeming" regulation.

In April 2014, the FDA released a proposed "deeming" rule that would prevent minors from purchasing electronic cigarettes and give the FDA authority over e-cigarettes, cigars, pipe tobacco, nicotine gels, hookah and dissolvables. The FDA proposed to include the additional items in several provisions that apply to regulated tobacco products, such as age and identification requirements to restrict sales to youth under 18 and prohibitions on free samples and vending machine sales. On Monday, the FDA sent its final "deeming" rule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for review. OMB review and approval is generally the last step in the regulatory process before a regulation is published and usually takes between 30 to 90 days. The contents and text of the final rule are not publicly available until it is approved by OMB and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2016
THE
TRADE
SHOW

2016 KAGRO International Trade Show

April 21-22, 2016 / 10:00am-5:00pm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Daedong Manor

KAGRO INVITES YOU TO OUR
GROCER & LIQUOR INDUSTRY TRADE SHOW

Food

Wine & Spirits

Natural & Organic Foods

Beverages

Coffee & Tea

Asian Foods

Frozen Foods

Equipment Manufacturers

Merchant Service & POS

Equipment Manufacturers

Bakery

Flatware & Drinkware

KAGRO International /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361-3rd Ave New York, NY 10016 U.S.A

Tel: 1-917-650-2125 Fax: 1-212-532-0314

Web: www.kagro.org / Email: kagronational@gmail.com



International Korean Grocers and Licensed Beverage Association
361 3rd Ave. NY, NY 10016 Tel: (646) 670-6631 Fax: (212) 532-0314

국제 한인 식품 주류상 총연합회 Trade Show

북미주 시장은 수억개 기업들의 각축장이다. 상품/제품에 대한 홍보와 선전이 없는 전략은 무용지물이다.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고국기업의 제품 또는 지역 특산물 (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북미주내 관련산업 TRADE SHOW의 적극 참가 권유를 위함입니다. 또한 주선 중소기업 및 지방자치체 담당자와의 상호협력이 고국진행 시장개척과 한류 식품주류 사업이 북미주 동포 및 현지 미국/캐나다 잠재 고객에게 홍보하고 판매 할 수 있는 식품주류상 총연합회입니다.

3만 5천 회원들 가게에 모든상품(제품)을 손님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상품소개와 홍보를 할 수 있는 곳이 식품총연합회 회원임 동시에 북미주 수출시장 진출을 위한 지름길과 29개 주 챗트 3만5천 회원들이 총연합회 웹사이트와 매거진을 통해 제품 소개와 마케팅을 바로 추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원들 매장에는 식품주류 뿐 아니라 IT, 전자, 농수산물, 식품, 주류, 하드웨어, LED 제품 등 그 어떤 제품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총연합회와의 TRADE SHOW 통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시장개척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eong C. Heo

KAGRO INTERNATIONAL
국제 한인 식품 주류상 총연합회
International Korean Grocers and Licensed Beverage Association
361- 3rd Avenue, New York, NY 10016
(TEL) 1-917-650-2125
(FAX) 1-212-532-0314

2016
THE
TRADE
SHOW

KAGRO International

국제 무역상품 쇼

国际贸易商品秀

일 시 : April 21-22, 2016 / 10:00am-5:00pm

장 소 : Daedong Manor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주 최 : 국제 한인식품주류상 총연합회

북미주 한인식품 주류상들의 연합체로 뉴욕과 로스앤젤리스, 애틀란타, 시애틀,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 27개 도시에 지회를 갖춘 미주내 최대 한인 직능단체로 3만 5천여명의 회원과 연간 총매출 4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식품 및 관련업체의 미국 시장진출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미주 한인업체 및 단체와 한국식품업체의 결연 및 컨설팅을 돕고 있다. KARGO를 통하면 미주지역 한인식품주류 업계를 한눈에 알 수 있다.

- 미국 시장 속 사정을 알면 쉽게 미주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 식품, 와인 및 주류, 무공해 식품, 동양식품, 냉동식품, 커피 및 음료, 제과, 제빵, 소품, SW 및 IT 등 관련분야 상품 1천여점 출품
- 미국진출 최고의 관문(현지 전문가 상담)
- 대미 수출 촉진 간담회(분야별 전문인 상담)
- 미국시장 맞춤 상품개발 상담

日 期 : 4月21-22, 2016 / 上午10:00 - 下午5:00

场 所 : Daedong 庄园(150-24 北方大道, 法拉盛, 纽约 11354)

主办方 : 国际韩国食品主流相总联合会

北美洲韩国食品主流奖的联合体的 纽约, 洛杉矶, 亚特兰大, 西雅图, 芝加哥 和费城 等27个城市具备 美洲最大的韩人职能团体 包括 3万5千多名会员和年总销售额400亿美元。韩国食品及相关提供企业进军美国市场的多方面的支持, 而且对美洲韩国企业及团体和韩国食品企业结盟及咨询的帮助。如果通过kagro , 可以对美洲地区的韩国食品酒类业 一目了然。

- 了解美国市场情况, 就能轻易进军美国主流市场。
- 食品、红酒以及主流、无公害食品、东洋食品、冷冻食品及饮料、咖啡、饼干、堤坝、道具、软件及IT等相关领域的商品, 1千多件展示
- 进军美国最佳关口(当地的专家咨询)
- 对美出口促进座谈会(各领域的专家咨询)
- 在美国市场商品开发咨询



초청장

2016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식품 전시회

이번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식품 전시회에서는 35,000회원의 식품및 주류상 업체들과 함께하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북미주 미국과 캐나업체들과 많은 특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본 국제 한인 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미국 경제 정책을 주시하면서 실물 경제의 중요한 주제로 동포경제를 살리고 각 지역 중소기업및 지방 자치단체들을 활성화 하는데 앞장서며 이를 위해 2016년 4월 21일 부터 22일까지 대규모 트레이드쇼를개최합니다

국제한인식품주류상 식품 전시회

날짜: 4월21- 22일 (목,금) 2016년

장소: 대동연회장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U.S.A 11354

시간: 오전 10시 부터 오후 5시 까지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트레이드 쇼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취지로
의에 초청장을 보내드립니다.

Seong C Heo



KAGRO INTERNATIONAL

국제 한인 식품 주류상 총연합회

International Korean Grocers and Licensed Beverage Association



KAGRO International

Day : April 21-22, 2016 / 10:00am-5:00pm

Place : Daedong Manor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The Kagro international Korean American Grocers Association is hosting an industry trade show on April 21-22, 2016 at the Daedong Manor in Flushing, New York.

We would like to invite you to participate as an Exhibitor in this event. KAGRO International represents over 35,000 retail outlets in 29 chapters in North America and reflects an annual sales volume of over \$30 billion. This show will be a uniqu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international retailers and outlets from all over the world.

KAGRO has thousands of member stores and thousands more non-member stores are being invited to attend. This is an excellent chance to expand your customer base with these small businesse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mplete the Reservation Form attached and fax it to 212-532-0314. Please visit the website KAGRO.ORG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kagronational@gmail.com or call Asst. Yunie at 917-579-9673.

The International KAGRO is hosting an industry trade show on April 2016 at the New York. You are invited to participate as an exhibitor, This show will be a uniqu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Thirty Five thousands of grocers, liquor stores and retailers from all over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KAGRO members are being invited to attend, This is an excellent chance to expand our customer base with these small businesses, Please visit the website for this event www.kagro.org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kagronational@gmail.com or Seong Chel Heo at 1-917-650-2125

Thank you.
Sincerely,

Seong Chel Heo
President
KAGRO International

Kwang Ik Lim
Chairman
KAGRO International

We are proud to announce 2016 KARGO International Trade Show. This show will be a uniqu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35,000 grocers & liquor stores from USA and Canada. Trade show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local economy and boosting up business values for companies and we are honored to extend our cordial invitation to you. It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have a new market entry in the world food industry.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t our Trade show.

Invitee : Manufacturer, Wholesaler & Retailer
Title : KAGRO International Trade Show
Date : April 22(Fri) 2016
Place : Daedong Manor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U.S.A 11354

We look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trade show and this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our friendly relation between Korea and USA for fostering the mutual business interchanges.

我们很自豪地宣布2016年KAGRO国际贸易展。这个展会将会是一个与35000家零售商和来自美国和加拿大的售酒商店合作的独特机会。

贸易展在促进当地企业或公司的经济和增加商业价值中扮演一个重要的角色, 我们感到非常荣幸, 并且向您致以亲切的邀请。

这将是一个进军全球食品行业的很好的机会。我们期待着您参与我们的展会。

受邀者: 製造商, 批發商, 零售商
标题: KAGRO国际贸易展
日期: 2016年4月22日(星期五)
地点: Daedong 庄园 150 - 24 北方大道, 法拉盛, 纽约, 11354

我们期待您的参与展会, 这将是一个促进美韩双方友好业务交换的很好的机会。

KAGRO INTERNATIONAL



361 3rd Ave., NY, NY 10016 USA

TEL: (917) 579-9673, (917) 650-2125 FAX: (212)532-0314

Nationalkagro@yahoo.com

PRESENTATION CONTENT

- Introduction to KAGRO International
- Scholarship Program
- KAGRO International Activities Program
- Board Members and Chapters Chart
- Website (www.KAGRO.org)
- KAGRO International Journal Publication
- Sponsors

Introduction to KAGRO International

• History

In 1987, two groups (chapters) of grocers located in California and Philadelphia collaborated to form KAGRO in 1989.

• Role in the Market

Currently 29 chapters make up KAGRO International across the North American hemisphere, representing roughly 35,000 members, with purchasing revenue of roughly \$30 billion.

Ability to reach roughly 35,000 members (along with families, friends, associates) to communicate information on products, distributions, and surveys.

Scholarship Program

- Partners and sponsors mentor the next generation of college-bound leaders in our communities.
- Over \$300,000 of scholarship funds are provided to 29 chapters throughout North America every year.
- Nominations for scholarships is directly linked to community involvement.

Activities Program

- **Board Meeting**
 - Takes place every April and October.
 - 54th KAGRO International meeting was held in Arizona on 2015.
- **Chapters Meeting**
 - Takes place every month.
 - Sharing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 **Small & Medium Business Assistance**
 - Occurs every year.
 - Assists small businesses in initiating and applying for import & export programs.

Board Meeting

- Coca-Cola, Frito-Lay, Pepsi, Anheuser-Busch, MillerCoors, and other sponsors present new and innovative products.
- Direct Q&A with company representatives to discuss and work through “red-tape”.
- Opportunity to establish new relationships and strengthen old relationships.

Chapters Meeting

- **Chapters Meeting**
 - Monthly / Bi Monthly
 - Classes and Seminars
- **New Product**
 - Company representatives
 - Local product placement
 - Ability to coordinate strategies
- **Point-of-Sale Training**
 - Members share training highlights
 - Promotional Merchandising





Invitation

We are proud to announce 2016 KARGO International Trade Show.

This show will be a unique opportunity to connect with 35,000 grocers & liquor stores from USA and Canada.

Trade show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local economy and boosting up business values for companies and we are honored to extend our cordial invitation to you.

It will be a great opportunity to have a new market entry in the world food industry.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at our Trade show.

INVITEE : Manufacturer, Wholesaler & Retailer

T I T L E : KAGRO International Trade Show

D A T E : April 21(Thur) - 22(Fri), 2016

PLACE : Daedong Manor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U.S.A 11354

We look forward to your participation trade show and this will be a great opportunity for our friendly relation between Korea and USA for fostering the mutual business interchanges.

Seong C Heo



KAGRO INTERNATIONAL

국제 한인 식품 주류상 총연합회

International Korean Grocers and Licensed Beverage Association



Kagro International

Trade Show Application

일시 : 2016년 4월 21 ~ 22일 / Date : April 21~22

Company Name 참가업체	Company 업체명	Phone 전화	
	Address 주소	Fax 팩스	
	E-mail	Cell 휴대폰	
Location 부스 장소	<input type="checkbox"/> Health / Madical 건강/의료 박람회 <input type="checkbox"/> Agricultural Product 고국 농수산식품 박람회 <input type="checkbox"/> Good Product 고국 우수상품 박람회 <input type="checkbox"/> Food / Beverages 미주류 식품/주류 <input type="checkbox"/> Other 기타		
Size 부스 크기	<input type="checkbox"/> 8 FT x 3 FT 1 Days \$1,000 <input type="checkbox"/> 8 FT x 3 FT 2 Days \$1,500		
No. 부스 번호		Price 부스 가격	
Remarks 특기 사항			

계약조항 / Terms and Condition

1. 부스 참가업체는 계약시 부스 가격의 50%를 지불해야 한다.
 2. 부스 참가업체는 본인들의 사유로 인해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될 경우, Deposit은 반납되지 않는다.
 3. 잔액은 박람회 시작 15일 전에 완납 되어야 한다.
1. Booth applicants are required to pay 50% of the total booth fee as deposit.
 2. Booth applicants will not be able to receive the deposit fee as a refund if they did not show up due to personal reasons.
 3. Full payment must be paid 15 days prior to the Trade Show.

Total Amount	
Deposit	
Balance	

Company Name	Name	Title
부스 참가업체	서명(Sign)	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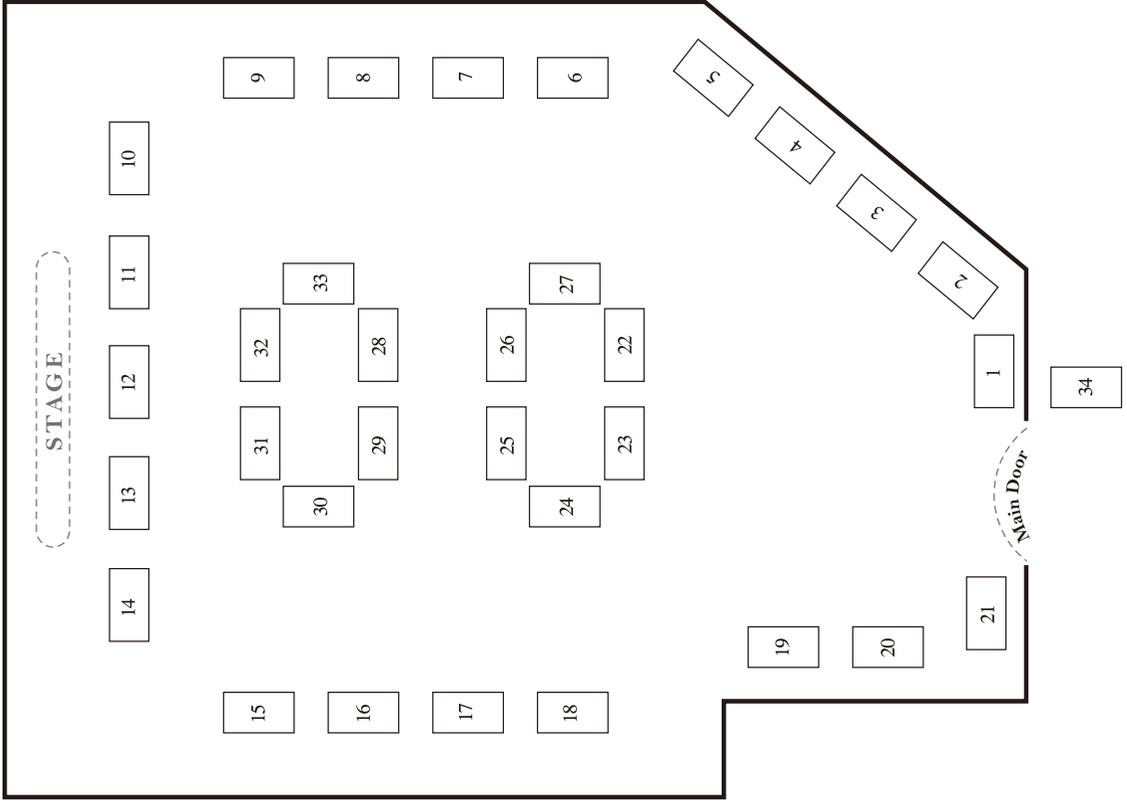
▪ Trade Show 장소 : **Daedong Manor**

150-24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Tel. 718-939-22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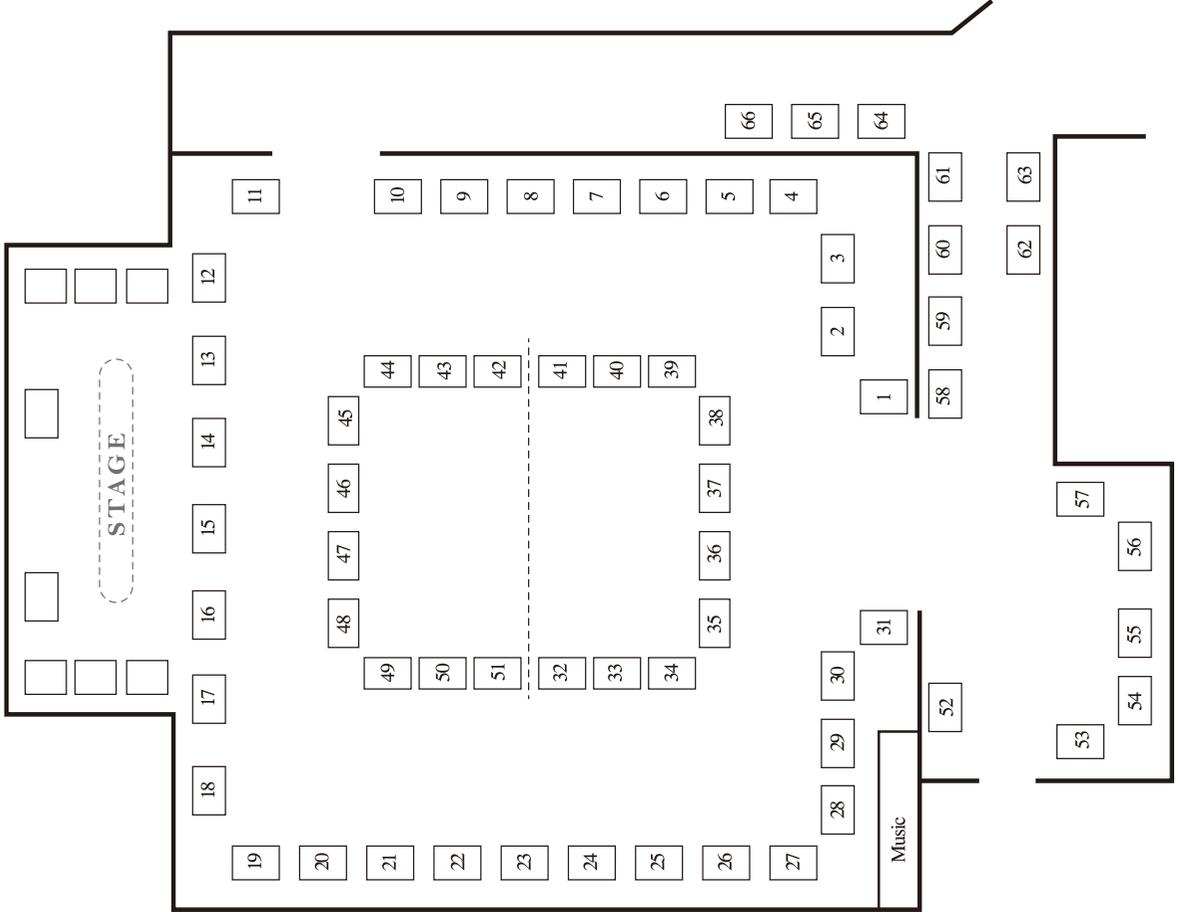
▪ 계약서 배송 주소 : **KAGRO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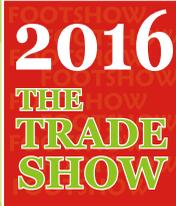
361 3rd Ave. New York, NY 10016 Tel. 917-650-2125 / 267-902-2328 Fax. 212-532-0314

Diamond Room



Grand Ballroom





KAGRO International Trade Show

안녕하십니까,

본 국제식품주류상 총연합회는 북미주 미국과 캐나다 식품 및 주류업에 종사하는 한인들의 연합체로서 북미주 전역에서 한국과 경제교류를 통해 양국 경제개발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총연합회는 2016년 4월21(목요일)- 4월22일(금요일)까지 NEW YORK, FLUSHING 에서 한국, 미국, 중국 등 국제 (식품, 주류, 가정용품, 하드웨어, IT 제품) TRADE SHOW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북미주내 최대의 한인 BUSINESS NETWORK를 갖고 있는 국제한인식품주류상총연합회가 고국의 중소기업 제품/상품 및 지역 특상품의 북미주시장 개척에 일조하기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이에 각 도, 시, 군, 지방자치제 담당자님께 식품 전시회 메거진에 넣을 홍보 파일을 보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4 용지 한 페이지 - one sided

*기간은 (2016년 1월 6일)까지입니다.

*Email: seongcheo@live.com



Snyder's-Lance



Maplehurst
the bakery specialists



ConAgra Foods
Food you love



U.S.A.

SAMUEL
ADAMS

HEINEKEN

MANHATTAN
BEER DISTRIBUTORS

Coors
LIGHT

Miller
Lite

DR PEPPER
SNAPPLE GROUP



Bartlett

Breyers

KLONDIKE

Budweiser



All Natural
BEN & JERRY'S
VERMONT FINERY

GOOD
HUMOR

made with
Gluten-Free
breadr.
Bread

The Original Brand
Popsicle

MoneyGram

Coca-Cola

PEPSI

fritoLay
food for the fun of it™

DIETZ &
WATSON

Beyer Farms

NOAHBANK
노아은행

KOREA

창조도시포항
Creative Pohang

이·책·마·침
익산시

FOODPOLIS
KOREA NATIONAL FOOD CLUSTER

대한민국
청정바다수도
THE CAPITAL
OF THE CLEAN SEA
WANDO
완도

OZAR
파인알파
오자르

주원염전
The Natural Mineral Salt

바이오뉴트리젠

용고집
용고집영농조합법인

NEWLY WEDS FOODS
inspiring new tastes

BUNGE

HKCG
香記咖啡集團
HIANG KIE COFFEE GROUP

CHINA

Ever Lee 茉麗
SINCE 1987

Nm 恩铭科技

KELIMOP 沈阳新新可丽清洁用品有限公司
SHENYANG NEW KELI CLEANING PRODUCTS CO., LTD

辽宁省饭店行业协会
LIAONING HOTEL ASSOCIATION

中国美容 FASHION
CHINA BEAUTY 时尚报

沈陽盛世展覽有限公司
중국선양성세전람



竭缔餐饮有限公司

百事达
Best

There is nothing quite like it.
Change your diet without sacrificing taste!

made with **Glusar 7.0**™
breaDr.
Bread™

Use a serving of **breaDr.**™ whole wheat bread in place of traditional bread as a part of a healthy diet to help maintain healthy blood sugar levels. A human clinical study found the glycemic index of **breaDr.**™ whole wheat bread to be 39!!!

- ✓ All Natural
- ✓ Low Glycemic Index
- ✓ Low Carb
- ✓ Excellent Source of Whole Grain
- ✓ Good Source of Fiber
- ✓ Good Source of Protein

...and do you know what the best part is?
breaDr.™ whole wheat bread tastes like traditional bread!

YbreaDr.
www.breadr.com



Absolutely CARNIVAL KT&G

MADE IN KOREA

CARNIVAL Red **CARNIVAL Silver**

SURGEON GENERAL'S WARNING: Quitting Smoking Now Greatly Reduces Serious Risks to Your Health.

Global Trading Inc. (KT&G USA)
Address : 2605 North Van Buren, Enid, OK 73703 USA
Toll Free(Order) : 1-877-580-5506 / Fax : 1-580-237-0610

International KAGRO Chapters

Arizona / Southern California / Central California / Chicago / Colorado / Dallas / Delaware / Georgia / Harrisburg, PA / Hawaii / Maryland / New York / Northern California / Oregon / Philadelphia / Tennessee / Virginia / Washington D.C / Washington / Calgary Canada / Edmonton / Canada / Manitoba Canada / Ontario Canada / Quebec Canada / Vancouver Canada / UKBA Canada



주뉴욕총영사관 OVERSEAS KOREANS FOUNDATION 재외동포재단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SBC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농정인농민농협 대구상공회의소 부산상공회의소 kotra Gyeongbuk FOODPOLIS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SOKCHC pohang 포항시 산청군 Sancheong-gun 전라남도 JeollaNamdo 경상남도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HANYANG UNIVERSITY MEDICAL CENTER 인하대병원 Keimyung University Dongsan Medical Center eco.healing SUN YANG

COLD

AND

REFRESHING!



REACH FOR THE FIRST BOTTLE THAT TELLS YOU
WHEN YOUR BEER IS COLD—THE COORS LIGHT® COLD ACTIVATED BOTTLE.
IT'S AS COLD AS THE ROCKIES.

21
MEANS 21®



THE WORLD'S MOST REFRESHING BEER™





WANDO COUNTY



완도의 바다는 갯벌, 해조류 숲, 맥반석과 조석 등이 물을 정화하여 청정한 바다를 만들고 이러한 청정해역에서 생산된 해조류는 최고의 맛을 자랑합니다.



WANDO SEA FOOD CO.,Ltd

Nonggongdangi 5-gil,Wando-eup,Wando-gun,Jeollanam-do,South korea

T:+82-61-553-8899/ F:+82-61-553-9898/ E:bada061@hanmail.net/Http://www.wandofood.co.kr



HYANG A FOOD Inc

Nonggongdangi ,Wando-eup,Wando-gun,Jeollanam-do,South korea

T:+82-61-555-8989 / E:food@hynaga.co.kr



CHUNGSAN FISHERMEN'S ORGANIZATION.

22-7, Nonggongdanji-4gil,Wando-eup, Wando-gun,Jeollanam-do, South Korea

T:+82-61-555-0151 /F:+82-61-555-5901/Mobile +82-10-2682-7975

E-mail: wjh7975@gmail.com/ [Http://www.chungsanbada.com](http://www.chungsanbada.com)



HANDLESUSAN

2-4, Nonggongdanji-4gil,Wando-eup, Wando-gun,Jeollanam-do, South Korea

T:+82-61-555-1959/ E: ps5903@hanmail.net



연잎발효오방국수

건강기능성 식품인 연잎가루를 오방색에 더하여 테마별로 제작하여 연잎, 단호박, 백년초, 현미찰쌀, 흑미국수 등 색감과 오징을 보호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건강을 자극하는 웰빙 식단용 상품으로 제작하였습니다.

녹색: 연잎 > 간장 [노화방지, 당뇨, 비만] 적색: 백년초 > 심장 [무병, 장수] 황색: 단호박 > 위장 [항암, 수험생, 보양식]
 백색: 현미찰쌀 > 폐장 [면역력, 알레르기] 흑색: 흑미 > 신장 [허약체질, 골절]

▶ 발효건강오방국수 먹는 법

발효처리한 오방국수는 소화기 잘되고 속이 편합니다. 또한 면이 부드럽고 쫄깃하며 조리후 면이 잘 붙지 않고 퍼지지 않으며, 밀가루 및 첨성제를 감소시킵니다. 헝가리 면만 요리해도 좋으나 여러 가지 오방색을 조금씩 섞어 끓이면 색감이 좋고 면 각각의 효능이 상승작용하여 식감을 유지하고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상품관련 대외 보도자료

○ 2014년 HIT500체험단 "새로운 맛과 향의 발견"

<http://blog.naver.com/lwgggg?Redirect=Log&logNo=220148940600>
<http://blog.naver.com/blue2bird?Redirect=Log&logNo=220136689842>
<http://blog.naver.com/iyewon?Redirect=Log&logNo=220133954912>

○ 2014년 11월11일 서울경제 "스님들과 손으로 빛은 사계절 맛과 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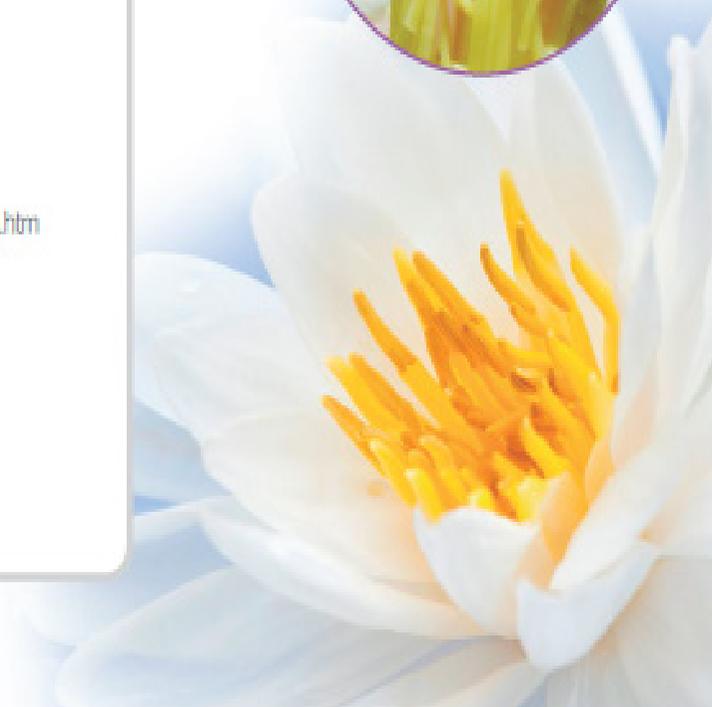
<http://economy.hankooki.com/lpage/industry/201411/e20141111171817120180.htm>

○ 2014년 10월10일 중앙일보 "내가 만든 약선차로 건강지킨다"

- 연잎차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데 효능이 있다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2882161

○ 2014년 9월 7일 뉴스엔미디어 "동안비결 연잎차"

- 연잎차는 천연방부제로 불릴 정도로 항산화효과가 뛰어나 동안미모유지에 도움이 된다
http://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409070214347410



KAGRO Photo Gallery

남가주 식품협회 2015년도 장학금 수여식



밴쿠버 캐나다 식품협회 송연의 밤



2015년도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 장학금 수여식





2014 Hottest Items from Korea

www.vilac.co.kr

Conveniently enjoy a meal!
Ready in just 3 minutes!

Vilac Cup Rice

4 Flavors (Fried Kimchi / Seafood / Chicken Curry / Black Bean Sauce)

Sunghyun Seo | seosh@vilac.co.kr
82-51-630-7363

www.daesangfnf.com

Daesang FNF Kimchi

Eunkyung Woo | ekwoo@daesang.com
82-2-3290-8841

www.mhrg.kr

**Manuka and Ginseng
Manuka Honey & Red Ginseng Stick**

Angela Lee | angela@mhrg.kr
82-2-577-3389

www.chois1.com

Choi's 1 Seaweed Snack

A true "Super Food" from the Sea!
5 Flavors (Original / Natural / Teriyaki / Hot & Spicy / Wasabi)

Butler Oh | butler.oh@gmail.com
1-347-556-3113

www.bcsroyal.com

bcs International Seaweed Brittle

The healthy alternative to chips!
4 Flavors (Sesame Seed & Sea Salt / Crushed Almond / Sesame Seed & Hot & Spicy / Wasabi & Sea Salt)

Susan Kim | skim@bcsroyal.com
1-718-392-3355

www.gitdeum.com

Gitdeum Seaweed Crunch

Seaweed Crunch is Kimbugak (Korean traditional snack) made with seaweed and rice flour.

- Gluten-free
- No synthetic coloring
- No artificial flavoring

Tae-sung Yang | tsyang@gitdeum.com
82-63-715-1900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tCenter New York

Korea Agro-Trade Center, New York
111 Great Neck Road, Suite 503, Great Neck, NY 11021
mkim@at.or.kr | Tel:516-829-1633

KT&G



Absolutely

CARNIVAL

MADE IN KOREA



SURGEON GENERAL'S WARNING: Quitting Smoking Now Greatly Reduces Serious Risks to Your Health.

Global Trading Inc. (KT&G USA)

Address : 2605 North Van Buren, Enid, OK 73703 USA

Toll Free(Order) : 1-877-580-5506 / Fax : 1-580-237-0610

CHAPTER NEWS

필라델피아 한인 식품협회

● 식품협회 장학생 모집-7명에 1천 달러씩 수여
성적보다 에세이, 가능성 중시-2월10일까지 온라인 접수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는 '2016년도 식품인협회 장학생' 신청을 접수한다.

고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 7명을 선발해 각 1천달러의 장학금을 수여하는 식품인협회 장학생 선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성적표와 추천서, 자기 소개서, 에세이 등 관련 서류를 2월10일까지 온라인과 우편으로 접수해야 한다.

우완동 필라델피아 한인식품인협회 장학생선발위원회 위원장은 "식품인협회 장학생은 이미 5년 전부터 성적 위주의 선발을 탈피해 가정사정과 인성, 미래에 대한 가능성 등을 주요 선발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많은 학생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2016년도 식품인협회 장학생'에 신청하려면 자기 소개서와 에세이 등 개인이 작성하는 서류들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발송하고 교사 추천서와 성적표 등 학교에서 발급하는 서류들은 학교 직인이 찍힌 상태로 학교에서 직접 우송해야 한다.

우완동 장학생 선발위원장은 "많은 단체의 장학생 선발 기준이 성적 위주이기 때문에 성적이 썩 좋지 않은 학생들은 신청을 망서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식품인협회 장학생은 이미 5년 전부터 성적보다 자기 소개서, 에세이, 추천서 등 모든 분야를 고루 살펴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선발하고 있으니 많은 학생들의 신

청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완동 위원장은 또 "예체능과 사회 봉사 등 특정 분야에 특출한 업적을 보인 학생들의 경우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며 유학생은 선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식품인협회는 지난 1992년 이명식 회장 재임시부터 매년 7-15명의 장학생을 선발해 \$300-\$1000 달러의 장학금을 전달해 왔다.

2016년도 식품인협회 장학생 선발 에세이 제목을 비롯한 자세한 사항은 식품인 협회 홈페이지(www.kagro.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학금 수여식은 2월21일(일)로 예정돼 있으며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으면 장학금이 취소된다.

메릴랜드 한인 식품협회

●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주류 독점 판매권
이르면 2~3년후 폐지 될 전망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가 거의 80여년간 누려오던 주류 독점 판매권이 이르면 2~3년후에 깨어질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는 지난 1933년 금주령이 철폐된 이후 주류 판매 독점권을 행사해 한해 2,2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려왔으나 내년 카운티 주민투표에 독점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이 상정된다.

윌리엄 프리크 의원이 상정하게 될 이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레스토랑과 식당 등이 몽고메리 카운티 지정 매장에서 맥주



와 와인 등을 의무적으로 구입하지 않아도 된다.

메릴랜드주 회계감사원장인 피터 프랜츠도 주의

회에 내년 주의회 개원 시 이와 유사한 법안을 제출할 의향을 밝힌 바 있다. 프리크 의원과 프랜츠 회계감사원장은 “지난 수년 동안 몽고메리 카운티 지정 매장의 주류 배송 지연과 재고 부족, 직원 서비스 등 문제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불만이 제기돼 왔었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베데스다의 한 비어와인 업소 주인은 “어떤 물건이 언제 배달될 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업소를 운영할 수는 없다”며 “특히 주류 가격마저 터무니없이 높다”고 현재 몽고메리 카운티의 독점 시스템을 비난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카운티 주류 통제국의 한 관계자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지난 10개월여동안 상당히 개선했고 앞으로는 더 나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지아 한인 식품협회

조지아주 식품위생규정 시행으로 한식당에서 자체적으로 김치를 담그면 불법

새로운 조지아주 식품위생규정 시행으로 인해, 한식당에서 자체적으로 김치를 담글수 없게 됐다.

18일 조지아 공공보건부에 따르면, 현재 배추나 상추과의 잎사귀 채소는 ‘온도조절 의무 식품’(TCS)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달 초부터 새롭게 시행된 식품위생규정 때문이다. 귀넷 보건부 새라 닐 대변인은 “11월 1일부터 개정된 조지아 식품위생규정 상 배추 보관 기준이 바뀌었다”고 본지에 밝혔다.

새 규정은 “몸통에서 잘린 잎사귀(cut leafy greens)는 화씨 41도 이하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정했다. 다시말해 대형 냉장창고 등 낮은 온도를 유지하는 환경에서만 배추나 상추 등으로 김치를 합법적으로 담글수 있다는 뜻이다. 또, 실온 환경의 주방 등에 자체적으로 김치를 담그면 위법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최근 귀넷카운티 보건부 인스펙터는 돌루스 한식당 등을 돌며 “이제부터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김치를 담글수 없다. 시판 김치를 구입해서 손님에게 내놓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돌루스 한식당 업주에 따르면, 귀넷 보건부 인스펙터는 최근 이 식당을 방문해 ‘김치를 담그려면 대형 냉장고 안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날 이 식당을 다시 찾아와 “식당에서는 아예 김치를 담글 수 없다. 사서 내놓으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식당 업주들과 손님들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돌루스 한식당업주는 “대형 냉장고를 갖춘 큰 업소면 모를까, 영세한 한식당들은 앞으로 김치를 담그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김치값도 부담이지만, 저희 가게 김치를 즐겨먹는 손님들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식당 업주는 “금시초문이며 말도 안되는 조치”라며 “요식업계 차원에서 보건부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돌루스 거주 한인 김모 씨는 “한식당마다 맛이 다른 김치를 골라 먹는 것도 식도락의 재미였다”며 “위생도 좋지만, 조지아 한식당 김치맛을 몇가지로 통일하라니 말도 안된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귀넷 보건부 새라 닐 대변인은 “새 규정을 지킬 수 없는 식당들은 조지아 공공보건부에 예외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며 “예외신청은 인터넷(dph.georgia.gov/food-service-manuals-and-forms)으로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DC 한인 식품협회

워싱턴 디시 식품협회, 시 당국·경찰과 연말 사건 대책 회의

지난주 워싱턴 DC에서 한인 식품업자가 폭행을 당하는 등 연말연시 절도 및 폭행사건이 빈번하다. 이에 한인 식품주류협회(회장 이요섭, 이하 KAGRO)는 DC 경찰서장과 아태주민국 담당자들과 3자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DC 7관구에서 리커스토어와 식품점을 운영하는 박흥순 씨는 지난주 도매거래처에서 산 물건을 가게로 옮기는 도중 과한에게 폭행 당하고 물건을 빼앗겼다. 박 씨는 현재 가벼운 부상이지만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평소 가게 인근에서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떼를 지어 서성이는 이들이 많아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가 회원으로 속한 캐그로는 시 정부에 면담을 요청, 지난 16일 7관구 경찰서에서 대책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피해자인 박흥순, 이창복 씨와 협회 측 이요섭 회장과 제임스 서 부회장을 비롯해 김형묵 부회장, 마이크 김 부회장, 유홍규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DC 아태주민국 데이빗 도 국장, 정강은 담당관 등과 DC 7관구 경찰서장 벤데트 파커 서장, 지역 담당 에드워드 델리시 경위도 참석했다.

데이빗 도 국장은 “DC 7관구 내에 57개의 아시안 운영 상점이 있으며, 이중 한인이 운영하는 곳은 34개”라고 현황을 설명하면서 캐그로 회원들에게 범죄 피해자 관련 보상 프로그램 등을 안내했다. 도 국장은 또 “경찰과 협력해 가게 인근 지역에

서 커뮤니티 이벤트 등 안전한 환경을 만들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벤데트 파커 7관구 경찰서장은 “가게 주변에 서성이는 사람들을 쫓아낼 법적 근거는 없어 많은 업주에게 불만을 듣고 있는 현실이지만 위협을 느낄만한 일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 박 씨에게는 “최근 지역 내 자전거 순찰팀을 꾸려 순찰을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밖에도 “식품업소에서 산 물품을 가게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시간을 정해 경찰 보호 아래 안전하게 물건을 나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DC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2016년 1월1일부터 워싱턴DC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법안’으로 한인 영세상인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워싱턴식품주류협회(KAGRO)·이요섭·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DC내 대형식품업소나 고급 델리 등에서는 종이나 플라스틱 소재의 용기 사용이 이미 저변화 돼 있다”며 “현재 스티로폼 용기를 사용하는 대부분 식품점들은 저소득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영세 식품점들”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스티로폼 컵 하나당 약 5센트 정도로 종이나 플라스틱 제품으로 바꾸면 두세배의 추가비용이 들게 될 것”이라면서 “영세한 업소일수록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고 금액도 매상대비 약 3~4%에 달해, 타격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회장은 “이같은 법안은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은 DC주민들의 의식을 반영한 트렌드의 변화로 한인상인들도 따라가야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DC당국은 1월1일부터 “워싱턴DC에 위치한 모든 식품 및 음료 사업체에서 스티로폼 용기의 사용이 전면금지되며

환경국의 현장단속도 즉각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도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법안이 카운티 의회를 통과해 2016년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식품 업계 관계자들은 스티로폼 용기 대체에 따른 DC 상인들의 추가소요 비용이 한 해 약 85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뉴욕시에서 7월부터 시행됐던 ‘스티로폼 용기 사용금지 법안’은 용기 제조사들과 영세상인들의 반발로 시작된 이의 제기 소송으로 지난 9월부터 2년간의 유예조치에 들어간 상태다. 맨해튼 지방법원은 “재활용이 불가능해 스티로폼 제품 사용이 절대적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는 정부의 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 메릴랜드주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신청 1천건 넘어

메릴랜드주가 지난 해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한 가운데 이 사업을 하겠다고 제출된 신청서가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메릴랜드 주정부가 24일 최종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의료용 마리화나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재배업체와 가공업체, 소매업체로부터 1,081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이중 대부분인 811건은 소매업체들이 제출한 것이었고 146건은 재배업체, 15건은 가공업체들이 신청한 것이었다.

주 정부는 신청서를 검토한 후 최대 15개 재배업체에 대해 사전 승인을 할 예정이며 가공업체는 무제한으로 승인할 수 있다. 사전 승인을 받은 업체들은 승인 후 1년 내 직원 채용과 공장 부지 변경 승인 및 신축 등 생산에 필요한 과정을 완료해야 최종 사업 라이선스를 받



을 수 있다.

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예상보다 많은 업체들이 신청한 관계로 모든 서류를 검토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메릴랜드는 2014년 만성질병 등을 겪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의 추천이 있을 경우 마라화나 처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워싱턴 주 한인 그로서리협회

● 워싱턴주 KAGRO, ‘경영인의 밤’ 및 회장 이취임식

창립 30주년을 맞은 워싱턴주 한인 그로서리협회(KAGRO)가 지난 19일 ‘경영인의 밤’ 송년행사를 통해 지난 1년간 어려움을 극복해낸 회원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시택시 더블트리 호텔에서 회원 및 협력업체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송년행사 및 회장 이취임식에서 협회는 내년에도 회원들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챙기며 벤더들과의 협력관계도 강화할 것을 다짐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년간 KAGRO를 이끌어온 고경호 회장은 “4~5개 업소로 출발한 KAGRO가 30년 후인 오늘 500여 업소를 포용하는 큰 단체로 성장했고 회원업소들의 연간 매출도 10억 달러가 넘는 발전을 이룩했다”고 지적하고 “한국인의 근면, 성실, 개척 정신이 이를 가능하게 했지만 이에 안주하지 말고 KAGRO가 한인경제뿐만이 아닌 워싱턴주 경제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고 회장은 한인업주들이 여전히 일부 벤더들로부터 홀대 받고 있다며 “이는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새로 협회를 이끌 김종찬 회장과 박재곤 이사장에게는 회원업주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지지해 KAGRO가 한 목소리를 내고 한 방향으로 가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김 회장은 “2년전 협회가 도입한 강도피해 업주들에 대한 보상금 지원제도인 ‘앤젤 펀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회원들과 벤더들의 이해관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다”며 “공동구매의 발판도 마련하고 오로지 회원 업소들의 권익 향상과 이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협회를 지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신임이사장도 “워싱턴주 내 1,000여 개 한인 업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회 추진 사업에 적극적인 회원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협회는 올해 회원 업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재정관리 및 세법 설명 등의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한데 이어 노숙자 급식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도 꾸준히 해왔다.

매년 골프대회를 통해 장학금을 마련, 역경 속의 한인학생들을 후원해온 KAGRO는 올해도 해리 신, 유진 최, 어스틴 박, 매튜 양, 브라이언 리군에게 각각 1,000달러씩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인기 트로트 가수인 김지민, 김연숙씨의 공연을 즐기며 지난 1년간 쌓인 스트레스를 풀었다. 협회는 1만 5,000달러 상당의 선물을 추첨을 통해 나눠주며 회원들의 노고를 달래줬다.

● 시애틀 스타벅스 배달 서비스 시작

스타벅스가 배달 서비스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한다.

스타벅스는 샌프란시스코 소재 배달회사 '포스트메이츠 (Postmates)'와 손잡고 시애틀 지역에서 배달서비스를 시작한



다고 2일 밝혔다. 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는 1시간 이내 배달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배달 비용은

팁을 제외하고 건당 5~6달러 선이다.

스타벅스가 시애틀 지역에서 배달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시작한 것은 개인 보다는 '단체 주문'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쁜 사무실에서 또는 간단한 모임이나 이벤트에서 손쉽게 주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스타벅스는 지난 10월 엠파이어스테이트 빌딩내 사무실에 한해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

● WA, 전자 담배 규정 더욱 강화한다.

타코마-피어스 카운티 보건이사회는 오는 11월 18일부터 전자 담배 규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피어스 카운티 지역에 해당되는 새 규정은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에게는 전자담배 (e-cigarettes)의 소지가 금지되고 공공장소에서나 작업장에서의 전자 담배 흡연도 금지된다. 또 소매업자들은 전자 담배 판매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액체 전자담배는 어린이들이 사용하지 못하게 포장해야 한다.

그동안 당국은 여러 달에 걸쳐 공청회를 가져왔다. 보건국 앤소니 첸 국장은 “니코틴이 중독된다면 전자 담배는 니코틴을 운반하는 차량일 정도로 더 위험하다”고 말했다. 또 담배를 어릴 때 흡연하는 사람은 평생 중독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현재 전자담배는 젊은이들에게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어스 카운티 10학년 학생들의 경우 5명중 1명꼴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이것은 담배를 피우는 수보다 2배나 되는 많은 것이다.

의자생활은 '새로운 흡연'! 무서운 '의자질환' 이란?



▲ '서서 일하기' 실천 중인 미래창조과학부 사무실

최근 몇 년 사이 '서서 일하기 (standing office, standing work)' 열풍이 불면서 높낮이 조절 책상, 스탠딩 데스크 등 다양한 이름의 키 높이 조절(높낮이 조절) 책상 광고를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의자질환(sitting disease, 의자병)은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으로 인해 병이 생긴다는 신조어, 흡연처럼 건강에 해롭다는 의미로 현대인의 '새로운 흡연(the new smoking)'이라고도 불린다.

의자질환은 왜 현대인의 건강 위협하는 '새로운 흡연'이라 불리나?

미국암학회 보고서(2010년)는 앉아있는 시간이 길수록 심혈관 질환, 당뇨병, 우울증, 비만에 걸릴 위험도가 증가한다고 전했고, 국제 당뇨병 학술지(2012년)는 앉아서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당뇨병 발생 위험 112%,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 147%, 전체 사망 위험이 49%나 높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캐나다 토론토재활연구소가 41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결과,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은 사망위험은 15~20%, 심장질환, 암, 당뇨에 걸릴 위험은 최대 90%까지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하루 8~9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경우 위험요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고 해도, 오랜 시간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 사망 위험을 뚜렷하

게 낮추진 못한다고 설명하면서, 오랜 시간 앉아 있는 것은 흡연만큼 해롭기 때문에 앉아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30분에 한 번씩, 2~3분간 일어나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앉아 있을 땐 30분~1시간 마다 2~3분간 일어서는 습관 필요

오래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 신체 활동이 저하되고, 대사량이 줄어든다. 또한, 인슐린 관련 세포 활동도 둔해지면서 당뇨, 대사증후군, 비만, 고지혈증 등의 위험이 커진다.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는 경우 척추측만증, 거북목 증후군 등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도 높아진다.

물론 오래 서서 일하는 경우도 문제다. 오랜 시간 서서 일하는 경우 하지정맥류, 다리부종, 만성근육통, 족저근막염, 무릎관절염 등의 질환 발생 위험이 커 주의가 필요하다.

즉,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것도, 너무 오래 서 있는 것도 건강에 좋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서 있든, 앉아 있든, 에너지 소비가 적은 자세를 몸에 무리가 되도록 오래 유지하는 것 자체가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이다. 특히 30분~1시간 마다 2~3분간 자세를 바꾸는 등 자신의 컨디션에 맞게 자세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전화통화나 회의할 때, 차를 마실 때에는 앉은 자세보다는 서 있는 자세로 변화를 주고, 엘리베이터에 기대지 않고, 가급적 계단을 이용하는 등 몸을 ‘멈추지’ 않고 ‘움직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제14대 집행부 명단

회 장	허 성 철	New York
대외수석 부회장	김 영 필	Canada
대내수석 부회장	이 요 섭	Washington D.C
부 회장	송 기 봉	Maryland
부 회장	김 백 규	Georgia
부 회장	연 규 상	Colorado
부 회장	고 경 호	Washington
부 회장	켈빈 최	Arizona

이 사

이 사 장	임 광 익	Colorado
부 이사장	정 태 진	Vancouver, Canada
부 이사장	이 종 식	New York
부 이사장	김 중 철	Southern California
부 이사장	장 종 희	Central California
부 이사장	김 익 주	Manitoba, Canada

본부 임원

홍보 이사	이 창 희	Philadelphia
사업총괄 부회장	이 종 환	Harrisburg, PA
여성분과 위원장	김 윤 옥	Virginia
총무이사	서 청 용	Colorado

감 사

감 사	이 승 수	Philadelphia
감 사	김 윤 옥	Virginia

스 폰 서

MILLER BREWING COMP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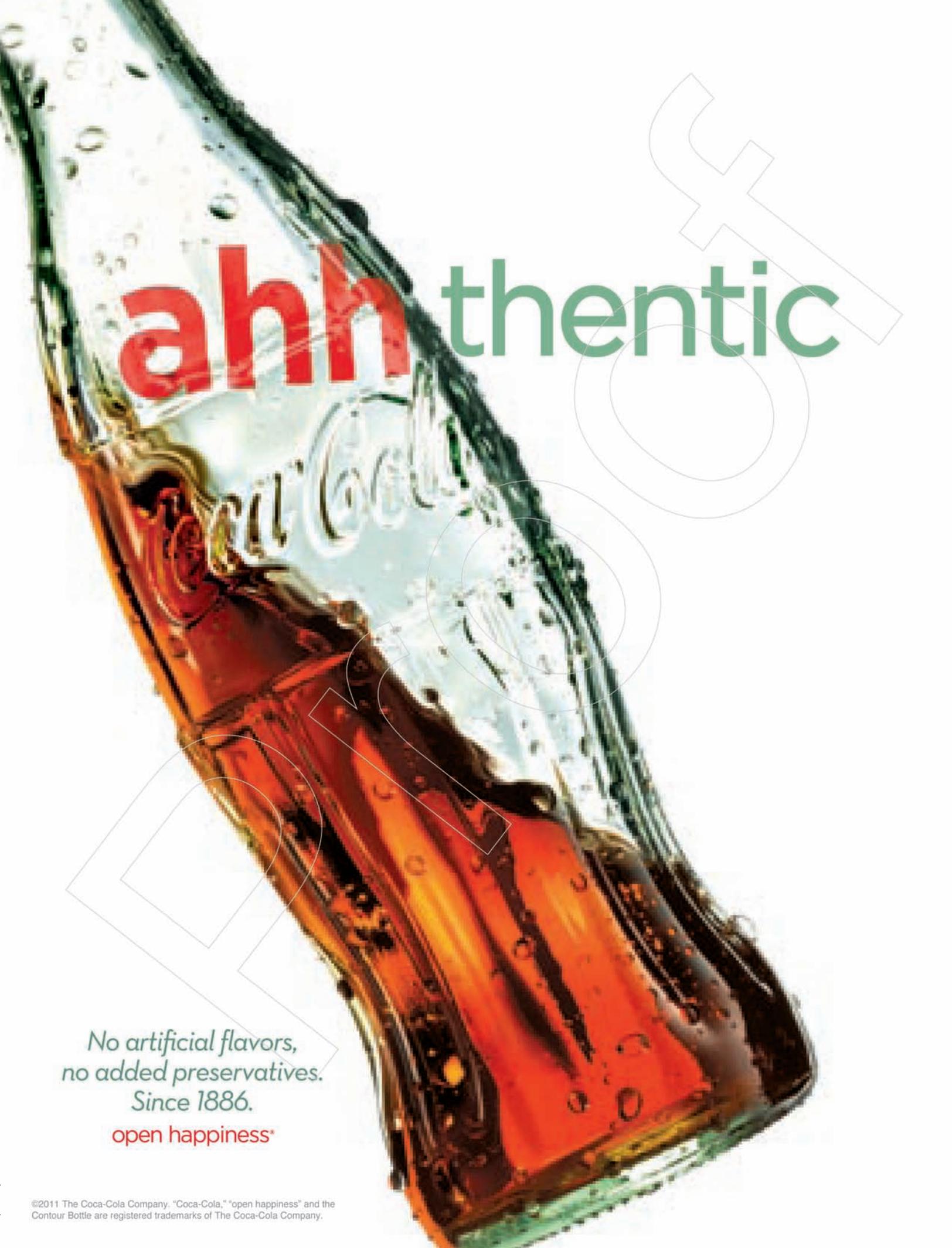
ANHEUSER BUSH INC

COORS BREWING CO

COCA COLA USA, INC

PEPSICO

*Appreciates the support of its
advertisers and encourage you to
patronize them*

A glass bottle of Coca-Cola is tilted, pouring the dark liquid. The word "ahh" is written in red, and "thentic" is written in green, together forming "authentic". The background is white with faint outlines of the Coca-Cola logo and the word "authentic".

ahh thentic

*No artificial flavors,
no added preservatives.
Since 1886.*

open happiness*



Budweiser

완벽한 조화.
깊고 순수한 맛.

